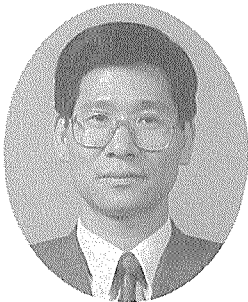




특집 II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경영자의 역할



韓國企業經營研究院
院長 魯 淳 圭

1. 안전 경쟁력과 안전의 개념

경제적 위기로 인한 침체가 계속되는 등 우리 기업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 기관련 기업을 비롯한 각 산업현장에서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들이 수 없이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행복한 보금자리인 가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자율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노사가 산재 감소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게 하는 등 산재 예방활동 중심으로 추진하여 안전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보면 '98년의 산재목표 재해율을 0.7%로 정하고 사망 만인율이 1.99에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또 유럽연합의 CE마크 등 선진 외국의 인증추세에 대비하여 기계기구 안전 인증제를 시행하고 위험기계 기구의 결함 발생시 제조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제(recall system)를 도입하여 재해다발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도모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지속적인 재해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망 재해는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등 중대 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안전이라는 의미는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종전의 단순한 보전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그 새로운 개념은 “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미리 막기 위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의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와 같은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안전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작업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전의 육체노동에서 기계화로, 또 자동화가 됨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전기관련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환경의 변화도 안전관리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관련 기업의 새롭고도 다양한 설비도입은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에 위협이 가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산업안전 보건이란 경영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으로서 작업중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며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을 배제하여 재해 내지 사고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작업방식에 의한 위험 발생을 미리 제거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체적인 안전은 물론 건물 및 기계의 파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중간재 혹은 부품의 결함에 따른 기계고장 등 이상방지과 재해예방이 경영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처럼 산업안전이란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요소 및 환경으로 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인간존중의 이

념”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종합적인 노력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

2. 안전관리의 국제 비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산업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 혹은 기업경쟁력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안전관리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안전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안전 소홀로 인한 산재 발생시 기업주 처벌 강화 등 산업재해방지 정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특히 미국은 전반적으로 산재율, 예컨대 근로자 100인당 산재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바 '75년의 9.1, '90년의 8.8, '95년의 7.5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개혁법’을 '95년에 제정하여 산재 사고가 적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및 면제 혜택과 규 개선 방안 제출을 의무화 한 ‘자율 안전관리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점검 및 산재 방지대책을 자문해 주면서 경비도 9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안전대책 마련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최고 60%까지 감면하는 ‘중소기업자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전 산업의 산재도수율, 예컨대 100만 노동 시간당 산재 건수가 2.0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은 산재도수율이 3.2로서 대기업의 0.5보다 훨씬 높아 전체 산재건수의 80%에 해당되어 이른바 산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설비 및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에게는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는 안전촉진제를 신설하고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의 주관하에 중소기업의 산재방지 활동을 점검하는 안

전관리 활동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고층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 도시국가의 특성상 산재사고의 대부분인 84%가 낙하 및 추락사고에 기인됨에 따라 산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산업 안전제도를 규정한 ‘공장법’을 대폭 개정하여 안전 감독 범위를 근로자 10인 이하의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기계,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작업장까지로 확대하고 산재사망자 발생시 벌금 2천5백만원 혹은 징역 1년인 처벌 법규를 벌금 1억원, 징역 1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을 면제하고 안전모 및 안전화의 착용, 사고시 처리절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방지대책 추진은 산재 문제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인권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 작업능률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3. 안전책임과 재해손실 예방

선진국처럼 우리기업이 가져야 할 안전책임은 여러가지로 고려될 수 있는데 먼저 광범위한 의미로 본다면 간접적으로 지니는 사회적 안전책임이다. 사회는 여러 집단을 하위에 두고 있는데 기업도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 소홀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건에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위험이 수반되는 전기제품의 제작을 포함하는 전기관련 기업은 자체의 이해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영자는 전기제품 제조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인명존중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기업안전”이 곧 “사회안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그들에게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인간성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안전책임은 기업 이익과 관련된다. 손익분기점으로 나타나는 수익과 비용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커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안전에의 투자는 곧 수익을 실현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설령 단기적인 평가에서 손실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필히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므로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결국 재해 최소화가 경영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4. 경영자의 안전조치

경영자의 책임은 작업장에서 기계 및 기구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생된 재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에게 부과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성격, 능력, 기능면에 대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훈련과 지도를 하여 기계적인 위험성과 불안전행동을 제거할 책임도 그에 포함된다.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인 것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제대로 방호되지 않은 기계, 설비, 공구, 기타의 결함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상태는 당연히

경영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구입할 기계를 선정하고,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공정설계, 결합의 발견, 교환, 보수 기타 안전한 작업조건을 유지하게 하는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계에 관한 것이든 물리적 작업 환경이든 작업장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경전기(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례는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상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공정과정 중 용접과정을 완전자동화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재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적은 기계를 도입하여 위험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런 결과는 중소기업 사업장으로는 드물게 무재해 5배를 달성하게 하였다.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 일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은 약간의 경영손실을 초래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어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작업장내 바닥을 모두 타일로 바꾸고 사업장 각 코너마다 의자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피로를 느낄 때는 언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작업반장, 생산과장 등을 실무팀으로 하는 생산기술과를 특별반(task force)으로 운영하여 작업장에서 비상조치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자는 작업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여 훈련 및 지도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강구하게 하고, 안전기준 및 안전사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은 절대로 경영자가 먼저 그러한 기준이나 규칙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마치 좋은 품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도 같은 노력이 가해져야 한다.

5. 맺음말 및 제언

우리는 '80년대 이전까지는 양적 경제성장에 치중한 관계로 인하여 산업안전에 관심이 부족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국제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기술의 혁신 및 노동시간의 개편, 근로자의 의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대외적으로도 경제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 제고의 필요성으로 인해 통상규제의 수단으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영자는 자나깨나 산업안전에 집념을 가지고 연구하여 산업재해란 예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의 99.9%를 예방 활동에 투자하는 업무 추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바라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땀흘려 일을 하고 또한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윤을 추구하며 근로자의 행복추구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복추구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조그마한 사고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은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실현시켜 줌과 동시에 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의 급속 성장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현장 곳곳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다. 경영자나 관리감독자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빨리하라'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

이에 적당주의 내지 대충주의에 젖어 버렸으며 정밀 내지 치밀함이 요구되는 작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원칙과 절차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원칙과 절차를 중시한 옛 선조들의 지혜를 되찾는 일이 안전문화 정착의 첫걸음일 것이다. 안전은 사람, 교육, 시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경영자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특히 무의식속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현재 극히 낮은 산재율에도 불구하고 안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부터 전기관련 기업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안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자.

